김–문 '선거구획정 회동' 30분만에 결렬

〈무성〉 〈재인〉

그저 먼 곳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기준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2+2 회동'에서 마주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동제' 아무런 성과 못내

다음 회동 날짜도 못잡아…與 "안되면 현행대로"

여야 지도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구수 일부 확대와 비례대표 일부 축소'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동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불과 20여분만에 회동을 끝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회동에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측은 이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중재안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지역구–비례대표 연동제'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지역구를 7석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요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만약 지역구 증원에 합의해줄 수 없다면 현행 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측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구현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오지 않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예시하면서 비례대표를 더 늘리거나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로 정한 상태지만, 이날 회동에선 다음 회동 날짜도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특히 양측 모두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15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과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제안한 연동제는 현재의 권력구조와 맞지 않는 만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못 받으니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지역구 숫자가 변화하는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줄여 조정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가 게임의 규칙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변화된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새누리당이 자기들 안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여당의 책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안을 다 내놨는데, 그것이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신당 바람 부나

당 보다 인물론…출마 예정자만 10명

내년 4·13 재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청장 출마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구는 현직 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곳이다. 내년 재선거 출마예정자만 10명에 달한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에서 신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지 여부다. 잇따른 재선거 원인제공 등 새정치의 공천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새정치 성향의 후보들조차 선뜻 당적을 대놓고 밝히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선거는 당보다는 인물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마예정자만 10명**=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재선거 출마예정자는 모두 10명이다.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임영일 동구 부구청장은 내년 1월 명예퇴직을 한 뒤 단체장 선거에 첫 출마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양혜령 전 시의원은 일찌감치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17%의 득표율을 올린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역시 지역 표밭을 갈고 있다. 광주시 주요 요직 국장을 거친 최현주 전 광주시 비서실장도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임택 광주시의원과 이선순 동구의회 의장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경 전 광주경찰청장과 윤진보 전 목포부시장, 정종해 전 보성군수, 문팔갑 전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 본부장도 거론되고 있다.

◇**신당·무소속 바람분다**=이번 재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은 새정치 텃밭에서 천정배·박주선·박준영 신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지 여부다. 새정치 측은 6일 현재까지 사고지구당이 된 동구에 대한 공천·무공천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선거는 재선거 원인 제공과 새정치의 공천 실패 등에 대한 주민 심판이 관전 포인트다. 전임 구청장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 성향의 신당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점도 새정치 입장에선 악재다. 현재로선 새정치 후보와 천정배·박주선·박준영 신당 후보 등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표심 드러날까**=이번 재선거의 승패는 당보다는 인물론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청렴한 인물을 뽑아 동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지역민들 사이에선 "선거를 왜 또 하느냐. 부끄럽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는 당보다는 인물론, 그리고 지역 이슈에 대한 바람몰이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용퇴론·험지차출론…새누리도 '시끌'

최경환 당 복귀 임박…비박 vs 친박 공천룰 전쟁 본격화

새누리당이 이번 주 공천 룰을 놓고 계파 갈등을 표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더 이상 공천 룰 논의를 미룰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애초 지난 10월 5일 출범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특별기구는 아직까지 특별기구 위원 구성을 총괄할 위원장 인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두 달간이나 표류하고 있다. 여당 최고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선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위임한 상황이지만 세 사람 간 특별기구 구성을 두고 고성까지 오간 상황이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개각도 공천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하면 공천 전쟁은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된다. 최 부총리의 복귀는 친박계와 청와대의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해 비박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대표 측은 경선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반영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우선추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해야 하고 우선추천제를 적극 시행해 공천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선·고령 용퇴론'이나 '중진 험지 차출론' 등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논란도 심상치 않다. 서청원 최고위원(7선)과 김무성 대표를 각각 겨냥한 것이어서 분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외정당 '민주당' 총선승리 결의

광주서 전진대회

원외정당 민주당이 광주에서 야권통합과 총선승리 의지를 다지며 세 확산에 나섰다.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는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야권 재창조와 총선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을 앞두고 전국 당원 3000여명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안야당 창출을 위한 야권통합과 총선승리를 결의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균환 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축하 화환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김종배 등 전직 국회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 전직 자치단체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석 시작위원회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저성장 시대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저비용 사회 실현' ▲특권타파 등 과감한 저비용 상생정치로의 개혁을 담은 '스웨덴식 정치개혁' 등 총선정책을 발표했다. /최권일기자 cki@

이개호 새정치 의원 지역구 예산 120억 확보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곡성·영광·장성·함평)의 정직한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 보고가 화제다.

이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구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 증액 예산으로 120억원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전체 총 사업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구 사업까지 갖다 붙여 수 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뻥 튀기' 과대 홍보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비교된다. 이 의원은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20억의 예산은 언뜻 보기에는 작은 규모인 것 같지만 총 사업비가 아닌 신규 및 증액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 및 증액 예산 만으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선 의원들도 이루기 어려운 성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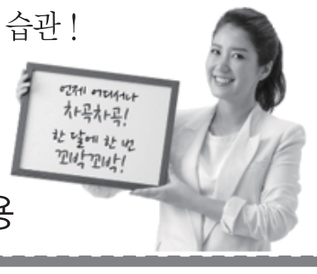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 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